경방 타임스퀘어, 26일까지 '무인양품 특별 기획전'

서울 영등포 경방 타임스퀘어가 26일까지 1층 아트리움에서 '무인양품 단독 특별 기획전'을 실시한다. 여름옷과 아동복 등 의류·잡화를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또 베개커버, 이불커버, 침장 매트리스 등 생활용품을 최대 50% 할인가에 내놓았다. 브랜드 대표 상품인 푹신소파, 좌식의자 등 가구 제품도 선보인다. 정정욱 기자

비즈 프리즘 | 금융과의 협업으로 위기 극복 나선 오프라인 유통업계

"이색 금융 서비스로 오프라인 고객 잡아라"

이마트-카뱅, 26주 적금 상품 협업
홈플-우디, 무인 환전·외화 서비스
GS25-BC카드, 페이북 컵라면 출시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금융과의 협업으로 고객몰이에 나섰다. 이마트와 카카오뱅크가 손잡고 내놓은 '26주적금 with 이마트'(왼쪽)와 홈플러스 '무인 환전·외화 적립 서비스'. 사진제공 | 이마트·홈플러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 부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금융과의 협업으로 위기 극복에 나섰다.

이색 금융 서비스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 집객 효과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마트는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31일까지 '26주적금 with 이마트'를 판매한다. 기존 카카오뱅크 26주 적금에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과 할인 쿠폰 사용 횟수에 따라 캐시백 혜택을 준다. 주력 소비자층이 다른 오프라인 유통과 인터넷전문은행이 협업을 통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게 이마트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핀테크 스타트업 우디와 손잡고 서울 강서·목동·영등포·잠실·중계점에서 '무인 환전·외화 적립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키오스크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로 해외여행 후 남은 20개국 외화를 '버디코인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포인트는 모바일 앱 버디코인에서 각종 모바일상품권으로 사용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또 키오스크에 현금을 넣으면 실시간 환율을 적용해 11개국 외화로 즉시 환전 가능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편의점 업계도 동참했다. CU는 삼성화재와 손잡고 점포 내 택배기기를 통해 '삼성화재 다이렉트 펫보험'을 비대면으로 판매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진만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오프라인 대비 10% 저렴하다.

GS25는 BC카드와 공동 개발한 자체 브랜드(PB) 컵라면 '부자될라면 페이북'을 내놓았다. 용기 상단 뚜껑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BC카드 페이북에 접속돼 결제는 물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별첨스프 3종의 이름을 페이북에서 제공하는 'QR결제', '마이태그', '해외주식·금투자'로 정해 재미와 관심도를 높였다. 김종수 GS25 상품기획본부장은 "업종의 경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이색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신선한 경험과 혜택을 선사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슈콤마보니 모델 송혜교 '클린과 빈티지 사이'

코오롱FnC의 슈즈 브랜드 슈콤마보니가 모델 송혜교와 함께 한 가을 시즌 화보를 공개했다. '비트윈(Between)'을 콘셉트로 한 화보에서 송혜교는 스니커즈와 로퍼를 신고 클린과 빈티지 사이의 상반된 분위기를 당당하면서도 우아하게 표현했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코오롱FnC

1회 완충시 309km 주행…유럽 1위 전기차 '르노 조에' 출시

〈ZOE〉

펀드라이빙·미래지향적 디자인 매력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본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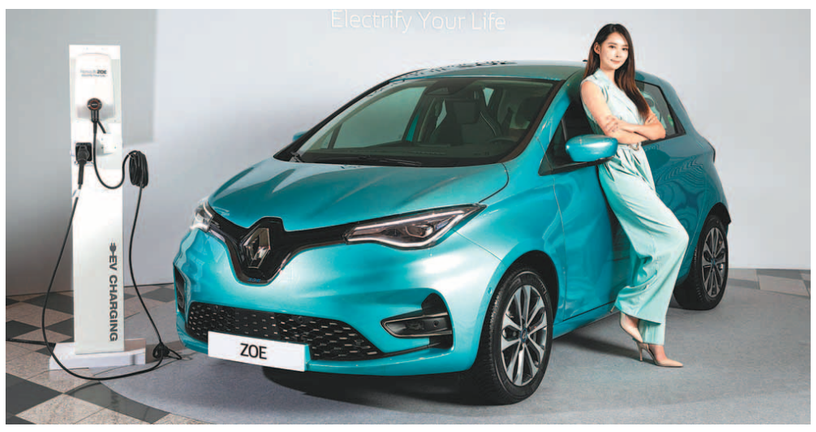
유럽에서 2012년 출시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21만 6000대가 판매되며 전기차 누적 판매 1위를 기록한 르노 조에(ZOE)가 한국 시장에 출시됐다.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도미닉시뇨라)가 18일 동대문 DDP에서 르노 조에 공식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국내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섰다.

르노 조에의 가장 큰 매력은 엄청난 펀 투드라이빙 능력과 1회 완충 시 넉넉한 주행 가능 거리에 있다. 르노 조에는 100kW급 최신 R245모터를 장착해 136마력의 최고출력과 25kg.m(245Nm)의 최대토크를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50km/h까지는 3.6초 만에 도달하고, 100km까지는 10초 이하에 도달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차의 특징 중 하나인 낮은 무게중심과 이상적인 무게 배분으로 라이드 & 핸들링 성능도 뛰어나다.

르노 조에는 54.5kWh 용량의 Z.E.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시 주행 가능 거리는 309km(WLTP 기준 395km)이다. 50kW급 DC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30분 충전으로 약 150km를 주행할 수 있다.



유럽에서 전기차 누적 판매 1위를 기록한 르노 조에(ZOE)가 국내 출시됐다. 1회 완충 시 309km를 주행할 수 있다. 사진제공 | 르노삼성자동차

디자인도 매력적이다. 르노 조에의 모든 트림에 'LED 퓨어 비전(PURE VISION)' 헤드램프와 LED 안개등이 기본 적용되었으며,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에는 동급 최초로 LED 다이내믹 턴 시그널 램프를 장착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더했다.

실내에는 동급 최대의 10.25인치 TFT 클러스터와 센터페시아에 '이지 커넥트(EASY CONNECT)'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적용된 터치방식 9.3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공조기능은 토글 스위치를 별도 적용해 더욱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다.

커넥티드 기능도 충실하다. 안드로이드 오토 및 애플 카플레이 기능을 지원하는 이지 커넥트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적용했다. 멤버십 차량관리 애플리케이션인 '마이 르노(MY Renault)' 앱을 통해 충전 및 차량 상태 정보 확인, 원격 제어 등이 가능하다.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 오토매틱 하이빔(AHL) 등 주행 안전을 위한 ADAS 기능을 모든 트림에 기본 적용해 뛰어난 주행 안전성도 확보했다.

르노 조에는 3개의 트림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젠(ZEN) 3995만 원, 인텐스 에코 4245만 원, 인텐스 4395만 원이다. 환경부의 국고 보조금 736만 원과 지자체별 추가 보조금 적용 시 서울시에서는 2809만 원, 제주도에서는 2759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미룰 수 없는 위암 검진, 검진기관 방역 실천여부 살펴야

국가암검진은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사업이다. 주요 검진 암종으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그리고 폐암이 있다.

그중에서도 위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맵고 짠 음식을 선호하는 식습관, 과음, 스트레스 등에 의해 우리나라의 위암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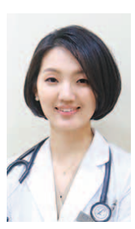
다만 긍정적인 치료사례도 그만큼 비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위암환자의 5년 순생존율이 최근 1년간 69.9%로 집계됐다. 10명중 7명은 위암치료에 성공한다는 뜻이다. 해당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상위권에 해당된다. 이러한 위암 치료결과의 긍정적인 사례는 높은 건강검진 수검률 덕분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위암검진을 기피하는 이들도 많다. 위내시경 검사에 대한 부담감, 바쁜 일상생활 스케줄 등이 검사기피의 주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최근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 역시 위암검진 기피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상기해야할 점은 위암 초기 병증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필수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암발병 초기에는 일반적인 소화불량 정도만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위암 1기에는 악성종양이 위점막, 점막하층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때 뚜렷한 임상적 양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반면 악성종양이 주변부로 침윤되고 전이마저 일으키는 2~3기부터는 치료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위내시경검사 등 건강검진주기를 올바르게 숙지하고 실천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보건당국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40~74세 수검자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위내시경 검사시행을 권장하고 있다.

위암은 여러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는 암종이다. 무엇보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연령 관계없이 정기 위암검진을 시행해 발병여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특정 유전자에 의한 유전,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 전염에 따른 발병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암 검진 가족력을 보유한 경우라면 필수로 정기검진을 시행해야 하는데 검진기관 선택시 코로나19 감염 우려 최소화를 위해 병원내부소독 및 원내감염방지에 힘쓰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검진기관의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수검자의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마스크착용, 손씻기, 안전거리 유지)가 수반된다면 건강검진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다.



성모혜민내과 **이혜민** 원장

'에픽게임즈 VS 애플', 앱 수수료 갈등 격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수수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트위터를 통해 "애플이 28일 에픽게임즈의 개발자 계정을 종료하고, 애플 운영체제(iOS)와 맥 개발 도구도 차단하겠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는 이와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신청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자 계정이 없으면 에픽게임즈는 앱스토어 앱을 만들 수 없게 된다.

이번 갈등은 에픽게임즈가 애플과 구글의 30% 수수료 정책에 반발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내놓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애플과 구글은 이에 에픽게임즈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최근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퇴출했고, 에픽게임즈는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30% 수수료' 갈등은 앞으로 점차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데이트 앱 '틴더'의 매치그룹 등이 에픽게임즈를 지지하며 힘을 보태고 나섰기 때문이다.

LGU+ "AI로 5G 서비스 품질 최적화"

LG유플러스는 '5G AI+'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18일 밝혔다. 고객들이 사용하는 5G 서비스 품질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5G 기지국 안테나 방향과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지국 셀 간 전파신호 간섭을 줄이고, 개별적 환경에 있는 기지국에 맞게 최적의 품질요소를 자동으로 도출하고 적용한다. 이를 활용하면 매일 변화하는 무선환경을 반영해 서비스 품질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 또 기지국 등 추가 설비투자가 필요한 지역을 자동으로 선정해 추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5G AI+를 이용한 5G 품질 자동 개선 작업은 7월부터 수도권과 강원권에서 우선 시작했으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타이어뱅크, 신한카드 캐시백 이벤트 진행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 타이어뱅크(회장 김정규)가 신한카드와 함께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한 'Deep Oil' 카드로 10만 원 이상 결제시 10만 원 캐시백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 후 반드시 '응모하기' 참여가 필수. 자세한 내용은 타이어뱅크 이벤트 홈페이지를 참고해 응모하면 된다. 대상은 행사 직전 6개월 동안 모든 신한카드 이용 이력이 없고, 온라인으로 대상 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이다. 해당 카드로 타이어뱅크 결제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은 지급일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타이어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